

## 경기도 평화기원 DMZ RUN 2년 만에 개최

11월 20일 ~ 28일 DMZ 155마일 걷기, Tour de DMZ, 평화통일마라톤 3개 프로그램 운영

---

기사입력시간 : 2021/11/01 [10:20:00]

이윤태 기자

---



▲ 지난2019년 Tour de DMZ 참가 선수들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 경기도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됐던 「DMZ RUN」 정부의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발표에 맞추어 2년 만에 개최된다.

'DMZ RUN'은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달리며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체감하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열리는 경기도의 대표 스포츠 체험행사다.

올해 행사는 DMZ 155마일 걷기, Tour de DMZ(자전거대회), 평화통일마라톤 총 3가지로 20·21일, 27·28일 나흘간 개최될 예정이다.

온라인 언택트 레이스는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동안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진행된다.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9.19km 또는 4.27km 중 하나의 코스를 정해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일정 및 코스 길이에 맞춰 GPS 기반 걷기/주행 어플을 활용해 인증하면 된다.

이번 「DMZ RUN」의 참가비는 3만 원(1만 원 상당 기념품 제공, 2만원 기부)이며, 해당 참가인원은 Tour de DMZ(자전거대회), 평화통일마라톤 최대 49명, DMZ 155마일 걷기의 경우 최대 499명이다.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오프라인 대회는 2차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경기 전 PCR 검사 48시간 내 음성 확인자여야 참가할 수 있다.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대회로 국민들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코스는 대회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참가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렛츠 디엠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